

7월 25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경기침체·연준 긴축 경로 확인 전후 변동성 리스크 ↑

서울, 7월2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하반기 첫 달을 마감하는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를 전후해 보폭을 확대하는 등 최근의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95-1,330원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테마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동 중인 가운데 글로벌 달러가 그간 일방적인 강세 모멘텀에서 한발 물러나 어정쩡한 행보를 보임에 따라 원화는 더욱 변동성에 취약한 모습이다.

경기 침체 가능성 확대로 인한 미국 국채 금리 급락이 달러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불안한 대외 여건에서 원화가 마냥 달러를 따르기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아울러, 달러가 위험 회피 분위기에 편승해 순식간에 강세로 돌변하는 경우도 잦은 데다 언제든 약세 압력을 키워도 이상하지 않은 유로 움직임을 감안하면 원화는 방향성보다는 그때그때 변동성에 대응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는 미국의 주요 빅 테크 기업인 구글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2분기 실적과 함께 향후 가이드선 따라 국내외 증시는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다.

또한,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속보치) 발표도 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6% 감소한 가운데 2분기도 역성장한다면 미국 경제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또한 시장 변동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번 주 가장 주목되는 재료는 연준 이벤트다. 매파 성향의 연준 인사들마저 7월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한목소리로 시사한 만큼 현재 시장은 이러한 결정을 선반영한 채 향후 정책 스탠스를 가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과 연준의 긴축 강도 완화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에서 연준의 경기 판단 따라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는 국내외 증시를 통해 투자 심리를 읽어내면서도 글로벌 달러와 연동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피크 아웃 기대는 조금씩 형성되고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연준이 시장을 향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안도 랠리를 전개할 수는 있다.

물론, 환율은 최근 수급상 여러 종류의 저점 매수세로 역내 수급 긴장감이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수급 때문에 하방 경직적인 흐름을 재확인할 수도 있어 보인다.

환율 상승 변동성을 자극하는 쪽으로 국제 금융시장 여건이 마련된다면 달러/원은 마땅한 저항선을 찾

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챙겨봐야 할 국내 경제지표로는 2분기 실질 GDP 속보치와 6월 산업활동동향 등이 있다. 로이터통신 사전 조사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분기비 0.4%, 전년비 2.5%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돼 1분기(전분기비 +0.6%, 전년비 +2.8%)보다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연준 회의 결과와 시장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28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7월25일(월)

- 금융위원회: 위원장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08:30)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BOK이슈노트 2022-26) (12:00)
-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 중 외국환 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12:00)

7월26일(화)

-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08: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11:00)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 (12:00)
- 통계청: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12:00)
- KDI: KDI FOCUS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 방안' (12:00)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국회 대정부 질문 (14:00)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본시장 민간 전문가 간담회 (15:00)
-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2:00)

7월27일(수)

- 한국은행: 2022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금융감독원: '22년 상반기 ABS 등록발행 실적 (06:00)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09:00)
- 기획재정부: 1차관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09:30)
- 한국은행: 202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12:00)
- 한국은행: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BOK이슈노트 2022-27) (12:00)
- 통계청: 2022년 5월 인구동향·6월 국내인구이동 (12:00)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12:00)
- 한국은행: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은금융강좌」특강 실시 (14:00)
-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15:00)

7월28일(목)

- 한국은행: 2022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금융감독원: '22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 금융위원회: 2022년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06: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07:30)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 경제 규제혁신 TF (09:0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10: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방안 간담회 (10:00)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2022.7 -논고 : 미국 인플레이션 국면별 기대인플레이션과 기대프리미엄이 국내 수익률곡선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12:00)
- 한국은행: 2022년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12:00)
- KDI: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2/4분기) (12:00)
- 기획재정부: 1차관 인구위기대응 TF (14:30)
-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배포시)
- 한국은행: 2022년 8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배포시)

7월29일(금)

- ⊙ 통계청: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 평가 (09:00)
- ⊙ 기획재정부: 2022년 6월 국세수입 현황 (10:00)
- ⊙ 한국은행: 글로벌 경기둔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BOK이슈노트 2022-28) (12:00)
- ⊙ 한국은행: 2022년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 KDI: KDI 북한경제리뷰(2022. 7)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7월19~26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1~6월		Percent	17.30%
7월25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6월		Index	0.01
7월25일	23:30	미국	델러스연은 제조업경기지수	7월		Index	-17.70
7월26일	21:00	미국	건축허가 수정치	6월		Number of	1.685M
7월26일	22:00	미국	FHFA 주택가격	5월		Index	392.9
7월26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YY	5월		Percent	21.2%
7월26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7월	98.5	Index	98.7
7월26일	23:00	미국	신규주택 판매	6월	0.675M	Number of	0.696M
7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Y	6월		Percent	-6.50%
7월27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5월		Index	-1.5
7월27일	17:00	유로존	총 유동성(M3) 증가율	6월	5.5%	Percent	5.6%
7월27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6월		Percent	4.6%
7월27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7월22일 주간		Index	281.1
7월27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6월	-0.2%	Percent	0.8%
7월27일	21:30	미국	도매재고	6월		Percent	1.8%
7월27일	21:30	미국	소매재고	6월		Percent	0.8%
7월27일	23:00	미국	잠정주택 판매	6월		Index	99.9
7월28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7월		Indicator	1.47
7월28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7월	101.0	Index	104.0
7월28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7월		Net balance	-27.0
7월28일	21:30	미국	GDP 속보치	2분기	0.9%	Percent	-1.6%
7월28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18일 주간		Person	251k
7월29일	00:00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7월		Index	-1
7월29일	08:30	일본	도쿄 CPI	7월		Percent	2.3%
7월29일	08:30	일본	실업률	6월		Percent	2.6%

7월29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6월		Percent	-7.5%
7월29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6월		Percent	3.6%
7월29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7월		Index	32.1
7월29일	14:00	일본	주택착공 YY	6월		Percent	-4.3%
7월29일	18:00	유로존	CPI NSA	7월		Index	117.00
7월29일	18:00	유로존	GDP 속보치 YY	2분기		Percent	5.4%
7월29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6월	3.4%	Percent	0.5%
7월29일	21:30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MM	6월	0.5%	Percent	0.3%
7월29일	21:30	미국	고용비용	2분기	1.1%	Percent	1.1%
7월29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7월	56.0	Index	56.0
7월29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7월	51.1	Index	51.1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7월26일(화)

- ⊙ BOJ, 6월16~17일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오전 8시50분)
- ⊙ 필라델피아 연은 서비스업 7월 경기전망 서베이 발표 (오후 9시30분)
-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7일까지)

7월27일(수)

-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발표 (28일 오전 3시) · 파월 의장 기자회견 (28일 오전 3시30분)

7월29일(금)

- ⊙ BOJ, 7월20~21일 통화정책회의 주요 의견 공개 (오전 8시50분)

▶ 금주 세계 5대 이슈

⊙ 연준 정책회의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6~27일 정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7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준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이미 1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연준이 경제 충격을 우려해 이번 달에는 100bp보다는 75bp 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정점에 도달) 여부와 현재 미국 경제 상황과 관련한 연준의 견해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회의 성명을 통해 9월 금리 인상폭도 가늠해 볼 것이다.

⑤ 美 기업 실적

금주 발표될 구글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실적은 기업들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달러 강세를 얼마나 잘 견뎠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가 26일, 애플과 아마존은 28일 각각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레피니티브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S&P500지수가 올해 17% 하락하면서 주가수익배율은 올해 초 21.7배에서 약 17.3배로 하락해 과거 평균인 15.5에 가까워졌다.

⑥ 유럽 기업 실적

금주 에어버스, 폭스바겐, UBS 등 유럽 STOXX600 편입 기업들의 6분의 1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레피니티브 I/B/E/S는 전체 기업 평균 이익 증가율을 전년비 22%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 편차가 크다. 에너지 업종 이익은 전년비 무려 18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동산 업종 이익은 70%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STOXX600 기업들의 주가수익배율은 약 11.5배로 장기 평균인 14%를 밑돌고 있다.

⑦ 이탈리아 정치 불안

마리오 Дра기 총리 사임과 9월 조기 총선거 실시 등 이탈리아 정치 불안으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탈리아와 독일 간 10년 만기 국채 금리 격차가 확대됐다.

이탈리아 경제는 이미 물가 급등과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익스포저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유럽중앙은행(ECB)이 새로운 채권 매입 제도인 변속보호기구(TPI)를 통해 이탈리아 채권을 언제, 어떻게 매입할지도 관심이다.

로이터 소식통들에 따르면 ECB는 지금 당장 이 제도를 이용해 이탈리아 채권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⑧ 호주 인플레이션

필립 로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최소 지금의 두 배까지 꾸준히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 5일 기준금리를 1.35%로 50bp 올려 5월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12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시장은 27일 발표되는 호주의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시하고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2분기 CPI 상승률은 전년비 6.3%로, 1분기에 기록한 20년 만의 최고치 5.1%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 - 韓 정부 WGBI 추진과 슬픈 예감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7월20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원화채의 글로벌채권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편입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2009년 2월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달러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자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던 정부가 내놓은 게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카드다.

기획재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WGBI 편입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지 한 달 후 발표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 외국인이 국채·통안채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채권투자 세제지원 방안을 포함시켰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면제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위한 핵심 선결 사항으로 지적돼 왔었기 때문이다.

당시 WGBI 지수를 맡고 있던 씨티위원회는 그해 7월에 처음 원화채의 WGBI 편입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해 10월과 2010년 1월, 3월, 6월에도 안건으로 올렸지만 씨티위원회는 국제통합계좌의 활용도 문제, 정부의 선물환 규제 등을 이유로 원화채의 편입을 유보했다.

때마침 달러/원 환율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기재부의 의지도 이전 같지 않았다. 'WGBI 편입을 위해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이야기가 기재부 내에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달러/원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달러 유동성 우려가 과잉 자본유입에 대한 우려로 '바톤 터치'한 영향이다.

2009년 3월 1570원대였던 달러/원 환율이 2010년 말 1,130원대로 내려앉게 되면서 '환율 급락에 따른 수출기업 타격'이라는 헤드라인이 언론 지면을 도배하기 시작했고 결국 기재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를 부활시킨다. 사실상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 WGBI 가입 추진, 2009년 데자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오는 21일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WGBI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원화채의 WGBI 편입을 위한 선결조치임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15일 달러/원 환율이 1,326.1원에 종가를 형성하면서 2009년 4월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마감한 가운데 기재부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2009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채권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원화채의 WGBI 편입을 위한 최종 단계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기재부는 현재 씨티위원회로부터 WGBI 지수를 인수한 FTSE 러셀과의 협의에 돌입했다. 원화채를 지수 편입 논의 대상으로 올릴지 여부가 9월에 결정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에 원화채를 WGBI 편입 논의 대상 리스트에 올리지 못하면 내년 3월에 다시 시도해야 한다.

오는 9월에 원화채가 FTSE 자문위원회의 편입 논의 대상 리스트에 올라간다 해도 공식 편입 여부가 결정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WGBI 지수 편입을 위한 공식 결정은 매년 9월에만 열리기 때문에 내년 도전이 실패하면 또 1년이 필요하다.

문제는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고 원화채 WGBI 편입에 따른 편익 평가 역시 유동적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기재부의 모든 역량은 원화 안정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마치 2009년처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도 높은 언론플레이도 물밑으로 전개하고 있다.

1,300원을 넘는 달러/원 환율은 그 절대 수준 자체만으로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엔화, 유로화 약세를 추종하며 원화가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 예상치 못한 신용 이벤트 발생 시 원화자산시장에 대한 자본유출 우려가 확대되며 자기실현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원화 약세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 따른 한미 금리차 확대 우려, 교역조건 악화와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가 꼽힌다.

▲ 내년 환율 변수..WGBI 편입 논의와 슬픈 예감

내년에는 어떨까? 지난해 연초 90 수준이었다가 108 수준까지 올라선 달러지수는 어디로 움직일까? 올해 초 달러당 113엔 수준에서 현재 137엔대까지 치솟은 엔화는 어디로 흘러갈까? 물론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균형 환율로의 회귀 압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역사적으로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이 개시된 이후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어느 시점부터 달러/원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예감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요한 건 경기의 방향성이다.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이 글로벌 수요 둔화와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금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2010년 외환시장의 상황이 2023년에도 반복된다면 원화채의 WGBI 편입 시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가 경기역행적인 원화 강세를 추동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원화채의 WGBI 편입을 위한 FTSE 자문위원회의 요구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의 전제 조건으로 부각된 외환시장 자유화 여부 역시 WGBI 편입 논의 과정에서 한 묶음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가 결코 쉽게 허용하기 어려운 외환규제 완화 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당장은 기재부가 뭐든 해주겠다는 기세로 나팔을 불겠지만 달러/원 환율이 안정됐을 때 기재부 당국자들에게 과연 그 정도의 절박감 중 얼마나 남아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2009년과 달리 지금은 기재부 국제금융국이 아닌 국고국이 중심이 돼 원화채의 WGBI 편입을 추진하는 만큼 이전보다 환율 등락과 국채의 안정적인 수급 사이에서 유연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WGBI 편입 추진을 검토했던 국고국 역시 지난해 초 외국인의 대규모 원화채 매입과 환율 하락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유보한 채 물러선 바 있다.

기재부의 이번 WGBI 추진은 2009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는 게 사실이다. 당시 WGBI지수 편입만 추진됐던 것도 아니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도 병행 추진됐지만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자 소리 소문 없이 정책 테이블에서 사라졌다.

이번에는 진짜 다를까? 내년에 가서 보자.

(편집 박예나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 - 亞 중앙은행들 긴축 잇따라... 다음은 어디?

싱가포르, 7월21일 (로이터) -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 잇따라 긴축에 나서고 있다.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21일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 29명 중 18명은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11명은 25bp 인상을 점쳤다.

지난주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정례회의를 통하지 않고 통화 긴축을 전격 발표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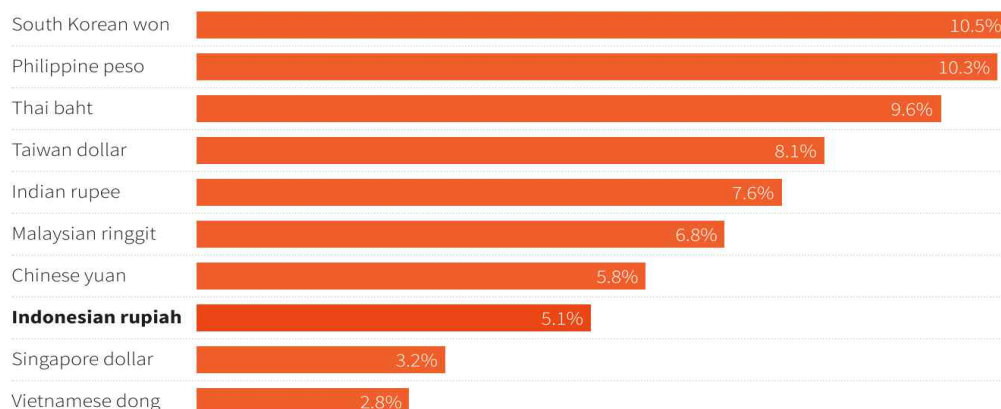
아시아 신흥국들은 비교적 늦은 지난달 말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었고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통화 약세와 자본 유출을 초래했다.

라비 메논 싱가포르 통화청 이사는 "많은 이들이 경기 하강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했고 물가 상승 속도가 이렇게 빠를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페소는 올 들어 현재까지 10% 이상 절하됐고 태국 바트 가치도 10% 이상 떨어졌다.

Asia currencies under pressure

Year-to-date move of U.S. dollar vs. emerging Asian market currencies



Source: Refinitiv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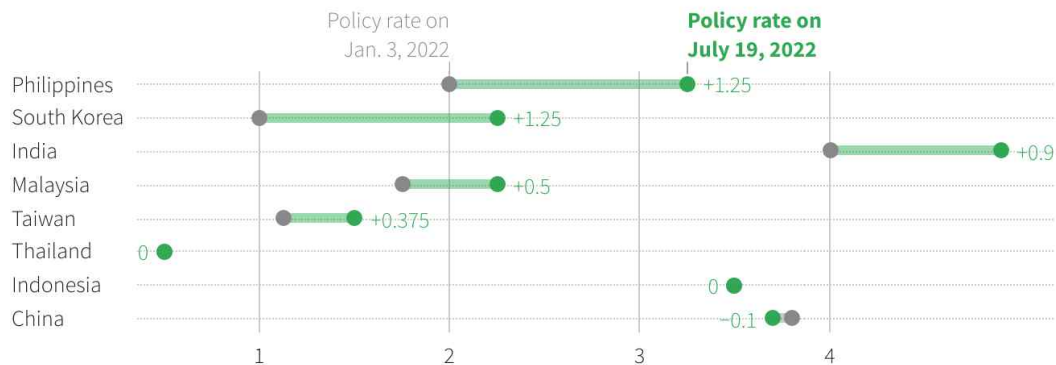
아시아 통화 가치 하락은 대부분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과 달러 강세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통화 당국이 급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핏계가 됐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중앙은행들은 식품 및 원유 가격 상승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태국의 6월 인플레이션은 14년 만의 최고를, 인도네시아 6월 인플레이션은 5년 만의 최고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도 6월 인플레이션이 24년 만의 최고를 기록한 후 지난주 다시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Asian countries policy rates move

Year-to-date change in interest rates among the emerging Asian market economies, percentage points



Note: One-year loan prime rate taken for China

Source: Refinitiv Datastream

태국은 8월1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태국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는 8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최근 바트 약세는 다른 아시아 지역 통화와 비슷한 수준이며 바트 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면 중앙은행이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22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313.0	1.0%	-9.5%	-8.6%	유로	1.0212	1.2%	-10.2%	-6.9%
100엔 대비	963.4	-1.2%	7.2%	+1.8%	엔	136.07	1.8%	-15.4%	-10.3%
유로 대비	1,338.6	-0.6%	1.0%	-1.9%	위안	6.7518	0.1%	-5.9%	+2.7%
위안 대비	194.15	0.6%	-3.7%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1,899.29	2.0%	-12.2%	+18.7%
코스피	2,393.14	2.7%	-19.6%	+3.6%	나스닥	11,834.11	3.3%	-24.4%	+21.4%
코스닥	789.75	3.6%	-23.6%	+6.8%	S&P500	3,961.63	2.5%	-16.9%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21.34	2.8%	-17.2%	-4.9%
국고채 3Y	3.218%	1.3bp	142.0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299%	2.8bp	128.8bp	+67.6bp	미국채 2Y	2.970%	-16.0bp	224.0bp	+61.0bp
국고채 10Y	3.302%	6.0bp	105.2bp	+53.7bp	미국채 10Y	2.750%	-18.0bp	124.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95.09	-2.5%	26.0%	+55.8%	한국 5Y	47.4bp	-5.2bp	25.3bp	-0.7bp
금(현물)	1,727.46	1.2%	-5.5%	-3.6%	일본 5Y	30.2bp	-1.9bp	12.6bp	+2.1bp
TR상품지수	3,448.73	-2.1%	3.3%	+24.6%	중국 5Y	83.1bp	0.0bp	41.9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